



제2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개최식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남부대학교 시립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2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최승빈, KPGA 선수권 생애 첫 우승

우승상금 3억원에 시드 5년 확보... 박준홍 준우승



최승빈(22이 '제66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총상금 15억원·우승상금 3억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최승빈은 10일 경남 양산 에이원 CC 남·서코스(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8개, 보기 1개를 쳐 7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를 친 최승빈은 박준홍(22)을 1타 차로 제압했다. 지난해 데뷔한 최승빈은 KPGA 코리아투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최승빈의 가장 좋은 성적은 지난 4월 '골프존 오픈 in 제주'에서 기록한 공동 5위이다. 최승빈은 우승상금 3억원에 시드 5년(2024-2028년)을 확보했다. 박준홍은 마지막 18번홀에서 보기를 범해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박준홍은 첫 우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김민수(33)와 김태호(28), 이원준(호주)은 최종합계 10언더파 274타를 기록해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女씨름 김시우 매화급 생애 첫 장사 등극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씨름대회 성황리에 마쳐 반달곰스포츠클럽 설운아, 학생부 무궁화 급우승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 우승자들. 매화급 우승 구례군청 김시우(오른쪽 두번째). /구례군 제공

민, 국화급에 박지유, 무궁화급에 이현아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 학생부 경기에는 무궁화급(80kg 이하)에 설운아(구례반달곰씨름스포츠클럽)가 우승을 차지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구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15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 장사씨름대회'가 4000여 명의 관중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여자부 체급전 및 천하장사전, 대학부 체급·단체전, 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선수와 인원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열기가 뜨거웠다. 대회 첫날에는 베트남 단상시 선자군 대표단 23명이 씨름대회를 관람하는 등 씨름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여자천하장사에는 구례군청 씨름단 소속의 최희화 선수와 거제시청 이다현 선수가 맞붙어 치열한 접전 끝에 3대2로 이다현 선수가 힘겹게 천하장사에 등극했다. 여자 1부 체급 장사에는 매화급(60kg 이하)에 김시우(구례), 국화급에 박민지가 우승을 차지했다. 2부 체급 장사에는 매화급에 이현

민)가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구례군청 씨름단 소속의 매화급(60kg이하) 김시우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으며, 학생부에서는 무궁화급(80kg이하)에 설운아(구례자연과학고)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는 등 여자씨름의 발상으로서의 미래를 밝게 했다. 김순호 군수는 1500례를 맞는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대회가 "여자씨름 발전의 기틀을 더 단단히 다지는 대회가 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씨름을 발전시키고, 구례군청 씨름단의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둔 구례군청 씨름단 선수들과 학생부 선수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중 씨름대회가 개최된다. /구례=오광범 기자

김우민, 광주 전국수영선수권 자유형 800m 7분49초97

박태환기록에 0.04초차...개인 최고기록 2.65초 앞당겨



김우민(22·강원도청)이 남자 자유형 800m에서 박태환이 보유한 한국기록에 0.04초 뒤진 기록을 냈다. 김우민은 11일 광주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2회 광주 전국수영 선수권대회 남자 일 반부 800m 결승에서 7분49초97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날 남자 일 반부 800m 결승에서 7분대 기록을 낸 선수는 김우민이 유일했다. 8분08초26으로 2위에 오른 오세범(인양시청)과 김우민의 격차는 컸다. 김우민은 7월 열리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실전 감각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나섰다. /김도기 기자

김우민은 올해 3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KB금융 코리아스위밍 챔피언십에서 작성한 종전 개인 최고기록(7분52초62)을 2.65초 앞당겼다. 한국기록에도 근접했다. 박태환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작성한 한국기록(7분49초93)에 불과 0.04초 차로 다가갔다. 현재 800m 한국기록은 박태환의 런던올림픽 1500m 레이스에서 측정한 구간기록이다. 남자 자유형 800m는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치러졌으며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이다. 경기 후 김우민은 매니지먼트사인 울렛스포츠를 통해 "자유형 800m에서 개인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1위를 차지해 기쁘고 만족스럽다. 다가올 세계선수권을 대비해 치른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 내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날이 더워서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았지만 경기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한국기록에 근접한 만큼 열심히 훈련해서 세계선수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다짐했다. /김도기 기자

김광현·정철원·이용찬 복귀 시동...김광현NC전 선발등판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음주로 파문을 일으킨 김광현(35·SSG 랜더스)과 정철원(24·두산 베어스)이 그라운드에 돌아온다. SSG는 11일 김광현을 1군 엔트리에 등록시켰다. 김광현은 이날 오후 5시 장원 NC파크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전에 선발 등판한다. 두산은 "정철원이 오는 13일 NC와의 경기부터 1군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NC도 이용찬(34)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김광현, 정철원, 이용찬은 WBC 대회 기간 중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SSG 감독은 김광현을 지난 1일 김광현을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김 감독은 "김광현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고, 김광현 역시 잘못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다. 두산 이승엽 감독 역시 정철원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후 KBO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정철원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해 경기에서 배제했다. KBO 징계위원회는 김광현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끝판

골프 트레이닝 전문점

골프PT & 골프필라테스

제형교정 | 비거리 향상
동작분석 | 운동재활
부상방지 | 재활트레이닝
필드레슨 | 스윙체크 및 기본기

트레이닝 경력 13년
대학교 겸임교수 출강 경력 다수
(운동역학·트레이닝법 등)
KPGA·KLPGA 프로 트레이닝
TPI전문가 김용규 트레이너

#광주 선수트레이닝 #광주트레이닝센터 #선수트레이닝 #골프트레이닝

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골FIT[GOLF FIT]

010-7773-6661

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 AM ~ 21:00 PM
※ 주말은 예약필수

